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

김 정 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장기의 영아에 있어서 영양은 매우 중요하며 영아기의 건강은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된다. 영아기의 영양은 영아의 신체적인 성장 발육 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적, 지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숙희, 1993).

모유는 모체로부터 분비되는 자연 영양으로 영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는 이상적인 식품이며 면역 작용이 있어 감염과 알레르기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모유수유 중의 모아 간의 친밀한 피부 접촉은 영아의 건강한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돕고 더 나아가 어머니, 또한 신체적 건강과 자신의 가치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자아성취를 증진시키며 여성의 모성애적 돌봄의 역할을 통해 심리적 성숙의 기회가 된다(변수자, 1994; 오현이, 1994).

W.H.O(1981)는 1979년 모유수유의 영양학적, 발달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범 세계적인 모유수유 권장운동을 한바 있으며 외국의 경우 모유수유와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모유의 우수성이 밝혀지면서 고학력,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모유 먹이기 부활되어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

부터 모유수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구미 선진국의 경우 90%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김숙영, 1994; 김혜숙, 199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지역의 영아 전반기의 모유수유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960년대의 약 95%에서 70년대 후반의 94%(가족계획연구원, 1977)이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1990년에는 모유수유율이 34.5%까지 저하되었으며(이경혜, 1992) 오히려 학력이 높고 생활환경이 높은 가정에서 인공수유를 선호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있다(김혜숙, 1995).

이에 더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엄마와 떼어놓고 모유수유가 시작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포도당액 혹은 우유를 수유함으로써 인공수유에 익숙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여성들의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와 신념과 지식 부족, 어머니로서의 역할 갈등 등도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조미영, 1992).

한편 모유수유를 계획한 경우라도 모유수유 계획 기간보다 모유수유를 실행한 기간은 짧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산모의 81%에서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며 계획한 모유수유 기간은 6개월 이었으나 계획한 기간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52%였고, 이들 중 75% 이상에서 3개월 이내에 중단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이혜경, 1986; 조미영, 1992).

* 경기전문대학 조교수

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에게 미치는 모유의 장점, 모유 수유의 적합한 기간을 고찰한 후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 방법 특성간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의 관계성을 규명함으로써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모유수유의 실행을 증진시키며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실천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으로 갖는다.

- 1)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3)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을 비교한다.
- 4)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을 비교한다.
- 5)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을 파악한다.
- 6)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방법 특성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정도를 비교한다.
- 7)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II. 문헌고찰

1. 모유의 장점

1) 영양학적 적합성

모유는 그 양이나 성분이 아기의 성장에 따른 신체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한다. 정상적으로 수유모들을 출산 후 유즙 분비가 첫 1개월에 600ml/일, 6개월에 750~800ml/일에 이르고 보충식이 제공되기 시작하는 그 이후에 점차 그 양이 감소한다. 즉, 모유의 양은 아기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한다(한경자, 1994).

또한 모유와 우유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많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유중에 당은 대부분이 유당으로 우유보다 함량이 높으며, 따라서 영아의 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외에 glucose, ga-

lactose, oligosaccharides를 소량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당의 역할에도 많은 연구가 행하여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oligosaccharides는 Lactobacillus bifidus-promoting activity를 가지고 있어 유아의 장내에 서식하는 많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킨다고 보여진다.

또한 모유의 총 단백질 함량은 우유보다 낮으나 모유의 단백질은 쉽게 분해되어 적절한 에너지 양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 그 구성에 있어서도 모유는 Whey : Casein의 비율이 8 : 2로써 우유의 2 : 8 비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윤혜선, 1992). 이 Casein은 과민반응의 주 원인이 된다. 또한 우유에는 없는 모유의 2가지 아미노산은 cystine과 taurine이다. cystine은 체조직 형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taurine은 초기의 뇌발달과 성숙에 필수적이다(한경자, 1994). 이외에도 모유에는 lactoferrin과 immuno-globulin 등이 포함되어 있어 virus나 세균의 감염을 막아준다(윤혜선, 1992).

영아영양에 있어서 열량의 가장 큰 공급원인 지방은 모유의 경우 지방성분이 고분자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영아의 장에서 쉽게 분해되어 흡수될 수 있으며 우유에 많은 short-chain의 포화 지방산 함량은 낮다. 모유 중의 지방에는 cholesterol 함량이 우유보다 상당히 높게 포함되어 있어 아기의 cholesterol치를 높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의 cholesterol 조절에 도움을 준다. 성인 중에서 모유수유한 사람은 cholesterol치가 높은 경우에도 20세까지 관상동맥 질환자는 더 적다(김혜숙, 1995). 또 유즙 내의 고도의 지방산은 아기로 하여금 모유를 그만 먹도록 유도하여 비만증을 예방할 수 있다(정진경, 1994). 그러나 모유의 고분자 불포화 지방산은 수유시 맨 끝으로 흡수되는 유즙에 가장 높은 농도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시간을 충분히 할애 했을 때 섭취된다(한경자, 1994).

또한 모유와 우유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무기질 함량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 무기질 함량은 우유가 모유에 비해 3개 가량 높으나 이것은 성장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모유에 포함된 무기질은 영아의 성장에 적합한 수준이며 활발한 조절과정에 관련된 Fe과 골격 성숙과 관련된 F의 함량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모유의 비타민 함량은 아기에 충분한 수준이나 경우에 따라 비타민 D와 C를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성 성분의 차이는 renal-solute load에 영향을 미쳐 영아의 신 기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다(윤혜선, 1992 ; 한경자, 1994).

2) 면역 및 항 알러지 측면의 장점

모유영양은 인공영양보다 면역학적 우수함이 인정되어 권장되고 있다. 초유와 모유에는 여러가지 내성인자가 있어 영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며 모유영양시 감염으로 인한 이환율 및 사망률이 인공영양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 되어 있다(이상권, 1987; 정진경, 1994; Chandra, 1979; Downham, 1976).

모유는 면역능력이 부족한 신생아에서 감염을 예방하며 극복할 수 있는 면역성분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공급원이다. 모유의 면역 성분은 체액 성분과 세포 성분으로 나누어 지며 분비성 면역 글로부린(secretory IgA: sIgA)이 가장 중요한 체액 성분으로서 미생물의 점막 내 침입을 저지하고 독소를 중화시킴으로써 위장관, 호흡기 등의 국소적 방어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김영훈, 1993). 또한 모유내에는 장 상피세포의 성숙을 촉진시키는 EGF(Epidermal Growth Factor)가 있어서 점막 방어벽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초유와 성숙 모유간에도 면역성분 및 농도에 차이가 있어 sIgA는 초유에 가장 많이 존재하여(17mg/ml) 4일 후에는 1mg/ml가 되며(윤혜선, 1992) 생후 2-3주까지 감소하며 그 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면역세포의 수도 성숙모유에 비하여 초유에서 가장 많이 관찰됨으로써 초유 수유가 신생아의 면역 방어 기전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김영훈, 1993).

또한 Mata(1971)와 Goldblum(1975) 등은 enteromammary pathway를 통하여 항체 형성세포(antibody-producing cell)가 모체 위장관에서 유선으로 이동하여 모유 내에 장관 감염균에 대한 분비성 항체를 형성하여 보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모유내의 면역 성분 중 세포성분은 대식세포, 호중구, 림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초혈액과는 달리 대식세포가 호중구보다 많이 백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림프구가 10% 내외로 존재한다고 한다(Bertotto, 1990; Bhaskaram, 1981). 또한 성숙모유는 초유에 비해 세포 수가 감소되어 있다고 한다. 즉, 초유 내의 세포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초유 중에서도 생후 24시간과 72시간 내에 채취한 초유 중의 세포 수는 10배에서 5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Ogra, 1978). 특히 초유의 림프구는 모체의 지연성 과민반응 등을 수동전달하며 장내 세균성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결핵,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에 대해 선택적인 방어기능을 제공한다고 한다(Schlessinger, 1977).

모유내의 림프구들은 말초혈액에서 보다는 장 관련

림프조직에서 중식 분화된 림프구들이 임신 중, 수유 중에서 유선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물 실험에 의하면 B세포는 대부분 장 관련 림프조직에서 분화된 Ig생산 형질세포이고 T세포 역시 선택된 장내 미생물에 감염된 T세포들로서 이러한 림프구의 선택적 면역 기능이 특히 신생아의 위장관, 호흡기 감염을 저지하는 것으로 본다(McDermott, 1977).

그외 대식세포는 보체, lysozyme, Lactoferrin 등을 합성하는 능력을 갖는다. 활성화된 보체 성분은 Gram 음성균의 세포벽에 작용하여 세균의 세포구조에 면역학적 공격을 가하게 된다. 또한 Lysozym은 Gram 양성균을 용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철 결합단백 Lactoferrin은 대장균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철(Fe⁺⁺)에 높은 친화력을 가져 대장균의 번식이 억제되는 것이다(A.A.P. 1978; Ebrahim, 1979).

이에 더불어 모유는 Allergy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최근 30년간 모유 영양이 감소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은 급격히 증가해 온 경향이 있다. Grulee 등은 인공영양아가 모유 영양아에 비해 7배 정도 알레르기 질환이 많다고 하였다(손근찬, 1991). 모유를 통한 신생아의 감염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나 경모유 감염은 비교적 일시적이며 불현성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에 모유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태아의 장(intestine)은 서서히 성숙하여 재태기간이 길어질수록 장 운동이 증가하여 항원의 체외배출을 돕는다. 임신 말기에는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 IgG가 태아에게 넘어가고 출생후에는 IgA를 분비하며 분비성 IgA(sIgA)는 장용모의 점막세포에 항원 흡착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IgA 결핍 때에는 이중 단백질인 항원이 점막세포를 통과하여 혈류나 림프관으로 들어가 과민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된다(Marlow, 1988). 그러나 신생아의 장 점막은 거대 분자 단백질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고 intestinal barrier인 IgA의 분비가 생후 6주에서 3개월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이 시기에 모유를 공급하여 불필요한 이중 단백질 항원내의 노출을 막고 모유에 있는 IgA로 인하여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손근찬, 199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최소 6주의 모유영양으로 Atopy 가족력이 있는 영양아에게 수유한 결과 Atopy 성 습진과 반복성 기침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Chandra, 1979). Blair(1977) 등은 영국에서 267명의 소아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인공영양시

69%, 1주 이하 모유 영양시 31%, 8주 이상 모유 영양시 28%에서 심한 천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전정자(1994) 등이 생후 첫 4개월 동안 모유영양을 한 경우 천명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감소됨을 보고 하였으며 이중단백질은 생후 6개월간은 후기보다 장관의 흡수가 용이하므로 우유수유를 하는 경우 과민반응 발생률이 높다고 하였다.

3) 지적 발달

뇌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인 신생아기에 영양의 불균형은 많은 영양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출생 초기의 영양이 신경 및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가 활발하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모유수유를 한 아기들의 지능지수가 인공영양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ilva, 1978 ; Lucas, 1990, 1992).

Lucas(1992) 등은 생후 7-8세 사이의 미숙아 300명을 대상으로 Wesch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을 사용하여 지능을 검사한 결과 모유수유군이 우유수유군보다 지능이 8.3점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 모유수유가 아닌 모유투브 영양법에서도 관찰되었으며 모유수유량과 지능지수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달면에 있어 미숙아는 출생 초기가 만삭아보다 뇌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출생 초기의 수유 종류가 성장후의 발달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에대한 가설로써 모유내 함유물 질중 신경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물질들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long-chain lipid는 인공영양아에서는 함유되어 있지 않고 모유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신경계의 구조적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며 docosahexanoid acid는 발달과정에 있는 뇌와 망막에 대량으로 축적된다고 했다.

Silva(1978) 등은 모유수유 만삭아 1,037명을 대상으로 3세에서 96항목의 발달사항(예를들어 gross and fine motor, verbal comprehension or expression, intelligence)을 비 모유수유군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으나 모유수유군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에 따른 발달상태를 관찰하였을때 수유기간에 비례하여 발달이 잘 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6개월 이상되는 어머니에게서 지적능력, 교육수준, 사회 경제수준이 인공수유군보다 유의있게 높았다. 따라서 현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학적 요인과 모유수유 요인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통계학적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하였을 때 아기

의 지능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모유수유, 사회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수준, 성별, 인공호흡기간 등이 영향을 주었으나 그 중에서 출생 초기의 모유수유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의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Morley 등은 어머니의 선택에 의하여 모유나 우유수유를 결정한 1,850g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여 Bayley Developmental test에서 Mental Developmental Index(MDI) 및 IQ검사인 Developmental Profile II를 생후 18개월에 검사한 결과 산모가 모유수유를 결정한 군은 인공수유군 보다 18개월에 MDI가 8점 높았으며 모유수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산모의 교육수준, 신생아의 성별, 출생순서, 출산방법 등을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배제하고 분석하여도 4.3점이 높았으며 IQ도 역시 모유수유군에서 4.4점 높았다.

Rodgers(1978)는 5,362명을 대상으로 8세에 지능과 읽기능력 검사를 하고 15세에 읽기능력, 문장완성, 수학을 평가하였다. 15세에서 읽기능력 저하가 나타난 빈도가 인공수유군에서 14.4%, 모유수유군에서 8.4%였으며 문장완성 능력을 인공수유군이 가장 낮고 모유수유군이 가장 높았으며 양군 사이에 모유수유 기간에 비례하여 문장완성 능력이 높음을 발표하였다.

인공영양군에서의 지능의 낮음을 이철(1995)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유영양과 인공영양의 성분의 차이로 모유에 중추신경 발육에 필요한 lactose, taurine과 양질의 단백질, 필수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음과 둘째, 수유에 관계되는 인자로써 감염에 대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또는 정신학적 영향, 세제, 인공영양을 결정하고 그 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예를 들면 어머니의 취업 등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의 지능과 운동발달에 모유수유와 인공수유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결과는 수유방법간 MDI 검사 결과는 우유수유군이 103.0, 모유수유군이 101.0, Psychomotor Development Index의 검사 결과는 우유수유군이 107.0, 모유수유군이 104.2로 각각 우유수유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결정과 관심, 사회 경제학적 인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어머니의 의지 등이 아기가 발달하는데 자극을 주며 발달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자라고 보면서 향후 보다 많은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수유방법간의 지적발달의 차이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모아관계의 증진과 애착형성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은 영양 섭취 뿐만 아니라 피부접촉을 통하여 아기의 감각기관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모자간에 일체감을 가져오고 모자간의 상호작용도 점점 깊어져 애착형성이 촉진된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피부에 부드럽고 감촉이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되어 인간관계 발달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이 정서적 안정감은 스트레스를 감소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영아의 면역적 보호를 높인다(Selye, 1976). 아기와 신체적, 감정적으로 가까워져 친밀감이 형성되고 엄마가 아기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절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며 접촉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기의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다. 엄마 또한 아기가 젖을 빠는 동안 평화와 만족 그리고 충족감을 경험하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는 유증생산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영향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도록 모성애를 유발시킨다고 한다(김혜숙, 1994, 1995). 이러한 과정속에서 엄마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여 오랜시간 동안 모유수유를 하게 된다. 모유수유를 오래한 경우 엄마와 아기의 관계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이 연구 결과로 모유수유가 상호관계를 유지,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모자 동실 제도를 실시하여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엄마방에서 옮겨 동실하므로써 엄마-아기 관계가 원만해지고 모유분비도 촉진된다고 한다. 모유수유를 위해 아기를 껴안고 쳐다보고 아기가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수유할 수 있고 아기와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 아기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도움과 주목을 받는다고 느낌에 따라 아기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도움이 되고 아동기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킨다(김혜숙, 1993).

2. 모유수유 기간

모유수유의 장점은 모유수유 기간과도 관계가 깊다. 성공적인 모유수유는 여러면으로 서술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유기간과 일치시켜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Kuba(1992)에 의하면 4개월 이상 모유수유한 아이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모유수유한 아이에 비해서 첫 반년간은 더 가벼우나 생후 1년 후에는 그 차이가 없어지며 2살 때에는 모유영양아의 몸무게가 더 나가고 모유를 오래 먹일수록 더 균형있는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자(1994)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첫 4개월동안 모유영양을 한 경우 천명을 동반한 하기도 감염의 발생 빈도가 감소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미원(1993)의 연구에서도 모유영양아의 경우 4개월 이내에 소화기 질환의 발생이 전혀 없었고 6개월 이내의 모유영양의 소화기,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모유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 물질이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정진경(1994)의 연구에서도 생후 1년간 모든 호흡기 질환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호흡기 감염의 이환율이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 모유의 알레르기 발생 감소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서는 최소 6주의 모유영양으로 과민반응과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Chandra, 1979). 한편 이중산(1990) 등의 연구에서는 생후 4개월 이전부터 우유영양을 받았던 소아가 생후 4개월 이전부터 우유영양을 받았던 소아에 비해 우유단백에 대한 항체가 더 많이 생성되므로 우유 알레르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후 4개월까지는 모유영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Morrow(1988)에 의하면 생후 첫 2년간의 인지적 발달이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철(1995)의 연구에서는 출생 후 최소 3개월 이상 모유영양을 실시한 경우 영아의 지능과 운동 발달에 있어 모유수유군과 우유수유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혜숙(1993)도 분만 3~4개월까지 모유에 면역항체가 분비되므로 적어도 4개월 동안은 꼭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으며 아기가 충분한 자기 면역을 만들어 내는데 출생후 5~6개월이 되어야하므로 최소한 6개월은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때 선진국에서도 6개월 이상 모유영양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소아과 학회 영양분과위원회(Committee on Nutritio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도 생후 4~6개월간의 모유영양을 권장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시에 소재한 K병원과 C병원 소아과 외래 예방접종실과 N구 보건소 모자 보건실을 재원한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1996년 3월 10일 부터 3월 25일에 이루어 졌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설문지를 주고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 뒤 수집하였다. 이 중 K병원에서 53부, C병원에서 19부, N구 보건소에서 15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3부를 제외하고 총 84부를 분석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문헌조사 연구를 기초로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영아기 어머니, 영아에 대한 일반적 특성 9문항과 수유와 관련된 특성 13문항, 모유수유의 지식에 대한 내용 11문항, 모유수유의 태도에 대한 내용 8문항, 모유수유의 실천에 대한 내용 8문항과 기타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에 대한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로 내적 일관성을 본 결과 Cronbach's Alpha가 .81 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및 수유관련 특성은 인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간의 차이는 모유수유와 모유와 우유수유를 모유수유 집단으로 단일화 시킨후 χ^2 -test를 이용하였다.
- 3) 영아기 어머니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 실천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4)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방법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아기 어머니의 연령은 22세에서 36세의 분포로 평

<표 1>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총인수 : 84명

특 성 구 분		인수 (명)	백분율 (%)
어머니 연 령	25세 미만	9	10.7
	25~29세	48	57.1
	30~35세	26	31.0
	36세 이상	1	1.2
학 력	중 졸	3	3.6
	고 졸	52	61.9
	대졸이상	28	33.3
	무응답	1	1.2
직 업	가정주부	70	83.3
	전문직	8	9.5
	사무직	1	1.2
	서비스업	4	4.8
	판매직	0	0
	무응답	1	1.2
월 수입	100만원미만	15	17.9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41	48.8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6	19.0
	200만원이상	11	13.1
	무응답	1	1.2
가 족 형 태	핵가족	75	89.3
	시어머니+핵가족	9	10.7
자녀수	1명	62	73.8
	2명	18	21.4
	3명	4	4.8
영 아 성 별	남	50	59.5
	여	34	40.5
연 령	1~2개월	53	63.1
	3~4개월	14	16.7
	5~6개월	17	20.2
순 위	첫 째	66	78.6
	둘 째	15	17.9
	셋 째	3	3.6

균 연령은 28.1세였으며 25세에서 29세의 어머니가 전체의 57.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95.2로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월 수입은 150만원 미만이 66.7%, 150만원 이상이 32.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 가족이 89.3%로 나타났으며 시어머니를 포함한 확대가족 형태가 10.7%이었으며 자녀수는 2명 이하가 95.2%를 보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95.5%로 여아 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연령은 4주에서 6개월의 분포로 평균 2.4개월로 1개월에서 2개월의 영아가 전체의 63.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영아의 순위는 첫째가 78.6%, 둘째가 17.9%로 나타났다.

2.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 총인수 : 84명

특 성	구 분	인수 (명)	백분율 (%)
산전진찰	규칙적	68	81.0
	불규칙적	12	14.3
	반지않음	3	3.6
	무응답	1	1.2
분만방법	자연분만	49	58.3
	제왕절개	35	41.7
좋은수유방법	모유	69	82.1
	모유+우유	15	17.9
	우유	.	.
현재수유방법	모유	35	41.7
	모유+우유	17	20.2
	우유	32	38.1
	모유수유시도후 우유수유	21(65.6%)	
	모유수유시도없이 우유수유	11(34.4%)	
적절한	1개월 이하	1	1.2
모유수유기간	2~3개월	12	14.3
	4~5개월	20	23.8
	6~7개월	41	48.8
	8~9개월	5	6.0
	10~11개월	.	.
	12개월 이상	5	6.0
아기에게	분만직후(4~6시간후)	2	2.4
처음 젖을	분만후 24~48시간	39	46.4
물린시기	퇴원 후 집에가서	37	44.0
	무응답	6	7.1

특 성	구 분	인수 (명)	백분율 (%)
초 유	먹었다	61	72.6
	안먹었다	23	27.4
분만직후의 유방 맞사지	했 다	65	77.4
	안했다	18	21.4
	무응답	1	1.2
모유수유 중단시기	1개월 미만	7	9.6
	1~2 개월	10	13.7
	3~4 개월	4	5.5
	5~6 개월	17	23.3
	무응답	35	47.9
모유수유 중단이유	젖이 부족해서	17	23.3
	직장 때문에	9	12.3
	이유시기가 되어서	16	21.9
	엄마건강 때문에	4	5.5
	물젖이어서	5	6.8
	설사	3	4.1
	무응답	19	26.0
재분만의의 모유수유 계획	모유수유 하겠다	72	86.7
	모유수유 하지않겠다	4	4.8
	그때가서 생각하겠다	7	8.4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제공자	산전어머니 교실	8	9.5
	대중매체	18	21.4
	주위가족	11	13.1
	친 구	1	1.2
	의 사	4	4.8
	간호사	7	8.3
영향을 끼친 사람	없 다	34	40.5
	무응답	1	1.2
	본 인	43	51.2
	남 편	10	11.9
	식부모	5	6.0
	친정부모	11	13.1
영향을 끼친 사람	간호사	1	1.2
	의 사	.	.
	기 타	8	9.5
	무응답	6	7.1

(비해당 제외)

본 연구대상자중 산전진찰을 규칙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 영아기 어머니는 81.0%로 나타났으며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58.3%를 차지하였다. 아기에게 좋은 수유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82.1%가 모유 수유를 좋은 수유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수유방법으로는 모유가 41.7%, 모유와 우유수유가 20.2%, 우유수유가 38.1%로써 여기에는 모유수유 시도후 중단한 경우가 우유수유의 65.6%였으며 처음부터 모유수유를 시도하지 않은 어머니가 34.4%였다.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은 6~7개월이라고 응답한 건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6개월간의 단독 모유수유가 영아의 건강과 영양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일치하는 집단으로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을 영아 어머니가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을 8개월 이상으로 응답한 건도 12%로써 이는 최근 모유수유가 장려되면서 모유만으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계속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집단으로 생각되며 장기간의 모유수유아에게는 생후 7개월에 이미 철분 공급이 부족하여 철분 강화 이유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강의자, 1996).

아기에게 처음 젖을 물린시기는 분만후 24~48시간 뒤가 46.4%였으며 퇴원후 집에 가서의 경우가 44.0%, 분만 직후 4~6시간후가 2.4%로써 이것은 분만직후 처음 30분 동안의 조기 피부 접촉과 2~3시간 이내에 첫 수유를 하는 것이 그후 성공적인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A.A.P(1978)의 추천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보겠다. 초유를 먹인 군이 72.6%였으며 먹이지 않은 군이 2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숙모유보다 더욱 초유의 성분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분만 직후의 유방 맞사지는 했다는 군이 77.4%였으며 하지 않았다는 군이 21.4%로 나타났다. 이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임신 중반기 이후부터 산전관리와 분만 직후의 모유수유 격려로 촉진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유수유 중단시기는 5~6개월이 23.3%로 나타났으며 1~2개월이 13.7%로 5~6개

월 이전에 모유수유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의 52.1%로써 모유수유기간을 6개월로 계획하였으나 계획까지 미치지 못한 경우가 52%로 나타난 Taylor(1979)의 결과와 산모의 90%에서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나 그 중 61%가 5개월 이내에 중단하였다는 이근(1985)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모유수유 중단이유는 젖이 부족해서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근(1985)의 연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젖이 모자란다는 자체가 순수의 어머니의 질병이나 심한 영양실조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산모의 주관적 판단, 어머니로서의 적극적인 의지력 부족 및 지식의 결여 보충식의 조기시작등의 원인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재 분만시의 모유수유 계획은 모유수유 하겠다는 집단이 86.7%로써 본 연구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영아기 어머니의 분포보다 2배 이상의 결과로써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간호사의 개별 또는 집단 교육, 상담을 통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자로는 대중매체가 21.4%로 가장 높았으며 주위가족이 13.1%, 산전 어머니 교실이 9.5%였으나 “없다”는 항목도 40.5%로 나타났다. 이 결과 분만전후의 모유수유 교육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모유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본인이 51.2%였고 친정부모가 13.1%, 남편이 11.9%로 나타났다.

〈표 3〉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 비교

인수(%)

특 성	구 분	수 유 방 법		총 계	χ^2 값
		모 유	우 유		
어머니	연 령	25세 미만	6 (66.7)	3 (33.3)	9 (10.7)
		25~29세	29 (60.4)	19 (39.6)	48 (57.1)
		30세 이상	17 (63.0)	10 (37.0)	27 (32.1)
	학 령	중·고졸	33 (66.0)	22 (40.0)	55 (66.3)
	대졸이상	18 (64.3)	10 (35.7)	28 (33.7)	
직 업	가정주부	44 (62.9)	26 (37.1)	70 (84.3)	
	직업여성	7 (53.8)	6 (46.2)	13 (15.7)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0 (66.7)	5 (33.3)	15 (18.1)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7 (65.9)	14 (34.1)	41 (49.4)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 (50.0)	8 (50.0)	16 (19.3)	
	200만원 이상	6 (54.5)	5 (45.5)	11 (13.3)	
영 아	연 령	1~2개월	37 (69.8)	16 (30.2)	53 (63.1)
		3~4개월	5 (35.7)	9 (64.3)	14 (16.7)
		5~6개월	10 (58.8)	7 (41.2)	17 (20.2)
순 위	첫째	38 (57.6)	28 (42.4)	66 (78.6)	
	둘째, 셋째	14 (77.8)	4 (22.2)	18 (21.4)	

(무응답 제외)

3.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 비교

영아기 어머니 및 영아의 일반적 특성,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의 비교는 <표-3>과 같다.

영아기 어머니의 연령과 수유방법 비교는 25세 미만의 모유수유가 66.7%, 30세 이상이 63.0%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어머니의 학력과 수유방법의 비교는 중·고졸의 모유수유가 66.0%로 대졸 64.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과 수유방법 비교는 가정주부의 모유수유가 62.9%로 직업 여성의 53.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월수입과 수유방법 비교는 100만원 미만의 모유수유가 66.7%로 다른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영아 연령과 수유 방법 비곤는 1~2개월의 집단의 모유수유가 69.8%, 5~6개월이 58.8%, 3~4개월이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영아 순위는 둘째, 셋째의 집단의 모유수유가 77.8%로 첫째의 57.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4.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 비교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의 비교는 <표-4>와 같다.

분만방법과 수유 방법 비교는 자연분만의 모유수유가 63.3%로 제왕절개 60.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아기에게 처음 젖을 물린시기와 수유방법 비교는 분만 후 4~48시간의 모유수유가 68.3%로 퇴원

후 집에 가서의 64.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초유 수유와 수유 방법비교는 초유 수유를 한 집단의 모유수유가 72.1%로 초유 수유를 하지 않은 집단의 3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재 분만시 모유수유 계획은 현재 모유수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65.3%, 우유수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34.7%가 모유수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한 차는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 모유수유를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그 다음 아기에 게도 모유수유할 확률이 높으므로 수유형태는 한번 정해지면 다음 수유시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송규희(1989)의 주장과 같은 결과라고 사려된다.

5.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는 <표-5>와 같다.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정도는 총 평균 점수가 4.07로 송지호(1993)의 4.10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모유는 아기의 병일 예방할 수 있는 면역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유를 먹이면 아기에게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준다'가 4.70, '모유는 아기에게 좋은 영양식이다'가 4.53, '모유는 아기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가 4.51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 동안 일정기간 자연피임이 가능하다'가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 점수는 모유수유의 어머니가 4.18로 가장 높게

<표 4>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 비교

특 성	구 분	수 유 방 법		총 계	x ² 값
		모 유	우 유		
분만방법	자연분만	31 (63.3)	18 (36.7)	49 (58.3)	.092
	제왕절개	21 (60.0)	14 (40.0)	35 (45.7)	
아기에게 처음 젖을 물린시기	분만후 4~48시간	28 (68.3)	13 (31.7)	41 (52.6)	1.10
	퇴원후 집에가서	24 (64.9)	13 (35.1)	37 (47.4)	
초유수유	먹였다	44 (72.1)	17 (27.9)	61 (72.6)	9.88**
	안먹였다	8 (34.8)	15 (65.2)	23 (27.4)	
분만 전후 유방맞사지	했다	43 (66.2)	22 (33.8)	65 (78.3)	1.57
	안했다	9 (50.0)	9 (50.0)	18 (21.7)	
재분만시 모유수유계획	모유수유 하겠다	47 (65.3)	25 (34.7)	72 (86.7)	3.36
	모유수유 하지 않겠다	4 (36.4)	7 (63.6)	11 (13.3)	
	그때가서 생각하겠다				

**p<0.01

(무응답 제외)

〈표 5〉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 문항별 점수

mean(S.D.)

문항	수유방법			Total	F 값
	모유	모유+우유	우유		
1. 모유는 아기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4.71 (.51)	4.82 (.39)	4.75 (.56)	4.75(.51)	.28
2. 모유를 먹이면 산후 회복이 빨라진다.	4.22 (1.00)	4.05 (.89)	4.09 (1.17)	4.14(1.04)	.20
3.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3.91 (1.19)	3.11 (1.26)	4.12 (1.15)	3.83(1.24)	4.07*
4. 초유는 아기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4.57 (.69)	4.17 (1.18)	4.62 (.55)	4.51(.78)	2.04
5. 모유는 아기의 충치를 예방한다.	3.68 (1.32)	3.58 (1.22)	3.34 (1.51)	3.53(1.37)	.52
6. 모유수유동안 일정기간 자연피임이 가능하다.	3.42 (1.46)	3.52 (1.28)	3.25 (1.48)	3.38(1.42)	.24
7. 아기에게 젖을 먹인 엄마가 유방암에 덜 걸린다.	4.05 (1.25)	3.94 (1.02)	3.43 (1.31)	3.79(1.25)	2.22
8. 모유는 아기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4.71 (.51)	4.47 (.51)	4.37 (.97)	4.53(.73)	1.90
9. 모유를 먹이면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준다.	4.77 (.42)	4.88 (.33)	4.53 (.76)	4.70(.57)	2.58
10. 모유가 우유보다 아기에게 알레르기질환을 덜 일으킨다.	4.31 (1.05)	4.29 (.84)	3.59 (1.16)	4.03(1.10)	4.50**
11. 젖을 먹이면 유방의 모양이 변한다.	3.60 (1.16)	3.35 (1.22)	3.59 (1.21)	3.54(1.18)	.28
계	4.18 (.96)	4.02 (.92)	3.97 (1.08)	4.07 (1.02)	.99

*p<0.05 **p<0.01

나타났으며 우유수유의 어머니는 3.9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모유수유의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의 문항이 우유수유의 어머니가 가장 높게, ‘모유가 우유보다 아기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덜 일으킨다’의 문항은 모유수유 어머니가 가장 높게 각각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p<0.05, p<0.01)

6.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정도는 〈표 6〉과 같다.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정도는 총 평

균 점수가 4.37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점수 4.07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에서 애정을 느낀다’는 항목이 4.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가 4.55,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와 더 가까워 진다’가 4.51로 나타났으며 남편에게 모유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 4.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점수는 모유+우유수유 어머니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유수유 어머니가 4.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모유수유의 태도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의 문항이 모유+우유수유의 어머니가

〈표 6〉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태도 문항별 점수

mean(S.D.)

문항	수유방법			Total	F 값
	모유	모유+우유	우유		
1. 모유수유를 하므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는다.	4.71 (.45)	4.88 (.33)	4.21 (1.26)	4.55 (.88)	4.38**
2. 모유수유가 엄마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4.54 (.74)	4.70 (.46)	4.15 (1.22)	4.46 (.80)	2.44
3. 모유수유가 여성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4.37 (.80)	4.23 (.97)	3.90 (1.20)	4.16 (1.01)	1.83
4.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와 더 가까워 진다.	4.65 (.53)	4.52 (.79)	4.34 (.93)	4.51 (.76)	1.41
5.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4.11 (1.02)	4.58 (.87)	4.12 (1.07)	4.21 (1.01)	1.45
6.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4.48 (.61)	4.41 (.50)	4.25 (1.07)	4.38 (.80)	.72
7. 아기에게 젖 먹이는 모습에서 애정을 느낀다.	4.68 (.52)	4.70 (.46)	4.53 (.76)	4.63 (.61)	.67
8. 남편에게 모유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4.17 (1.15)	4.35 (.78)	3.93 (1.24)	4.11 (1.12)	.82
계	4.46 (.49)	4.55 (.47)	4.18 (.82)	4.37 (.65)	2.45

**p<0.01

장 높게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p < 0.01$)

7.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 정도는 <표-7>과 같다.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 정도는 총 평균 3.21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4.07,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4.37보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국물과 영양식을 먹었다'가 3.7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젖 몸살이 나도 젖을 계속 먹었다'가 2.36으로 가장 낮

<표 7>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실천 문항별 점수 mean(S.D.)

문항	수유방법			Total	F 값
	모유	모유+우유	우유		
1. 젖먹이기전에 유방과 손을 깨끗이 닦고 먹었다.	4.25 (.78)	4.17 (.72)	2.84 (2.18)	3.70 (1.61)	8.71**
2. 젖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국물과 영양식을 먹었다.	4.42 (.69)	4.41 (.87)	2.65 (2.13)	3.75 (1.67)	14.74**
3. 젖은 아기가 먹고 싶어할 때만 먹었다.	4.14 (1.08)	4.17 (.95)	2.62 (2.10)	3.57 (1.69)	9.75**
4. 젖을 먹일때는 한쪽을 다 먹인 후에 다른쪽 젖을 물렸다.	4.00 (1.05)	4.00 (.79)	2.46 (2.09)	3.41 (1.66)	10.22**
5. 피곤하면 젖이 부족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3.34 (1.08)	3.29 (1.10)	2.12 (1.09)	2.86 (1.55)	6.78**
6. 아기를 낳은 후 젖이 잘 나오지 않을때도 젖을 자주 빨렸다.	3.28 (1.34)	2.94 (1.39)	2.06 (1.93)	2.75 (1.67)	5.02**
7. 젖몸살이 나도 젖을 계속 먹었다.	3.37 (2.17)	2.47 (2.21)	1.19 (1.73)	2.36 (2.23)	9.78**
8. 젖을 먹인 후 트림을 꼭 시켰다.	3.49 (2.01)	3.59 (1.20)	2.78 (3.42)	3.24 (1.37)	1.16
계	3.79 (.64)	3.63 (0.41)	2.34 (1.19)	3.21 (1.37)	13.52**

** $p < 0.01$

(비해당 제외)

게 나타났다. 또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 점수는 모유수유의 어머니가 3.79로 가장 높게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01$).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점수는 '젖을 먹인 후 트림을 꼭 시켰다'를 제외한 나머지 7문항에서 모유 또는 모유+우유수유 어머니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방법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 정도간의 차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 8>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식, 태도, 실천 점수

구분	수유방법			계
	모유	모유+우유	우유	
지식	4.18 (.96)	4.02 (.92)	3.97 (1.08)	4.07 (1.02)
태도	4.46 (.49)	4.55 (.47)	4.18 (.82)	4.37 (.65)
실천	3.79 (.64)	3.63 (.41)	2.34 (1.19)	3.21 (1.37)

(비해당 제외)

8.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는 <표-9>와 같다.

<표 9>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

	모유수유	지식	태도	실천
지식		1.00	.47**	.18
태도		.47**	1.00	.34**
실천		.18	.34**	1.00

** $p < 0.01$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r = .47 (p < 0.01)$ 로 나타났으며 태도와 실천간의 관계는 $r = .34 (p < 0.01)$ 로 각각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과 실천간의 관계는

$r=.18$ 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상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각각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모유수유의 실천을 상호 성공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으며 이것은 송지호(1993), Robbin(1992), Baisch(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머니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모유수유의 실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문헌조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수유와 관련된 특성 13문항, 모유수유 지식에 대한 11문항, 모유수유 태도에 대한 8문항,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8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1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6년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16일간 인천시에 소재한 2개의 종합병원 외래 예방접종실과 N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내원한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아기 어머니 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어머니의 82.1%에서 영아에게 좋은 수유방법으로 모유수유임을 제시하였으며 적절한 모유수유기간으로는 72.6%에서 4~6개월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수유방법으로는 모유수유가 41.7%, 모유+우유수유가 20.2%로 나타났다. 아기에게 처음 젖을 물린시기는 분만직후 4~6시간후가 2.4%였으며 초유를 먹인 경우는 72.6%로 나타났고, 분만전후의 유방맛사지는 했다가 77.4%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중단시기는 28.8%에서 4개월 이내에 중단하였으며 중단이유는 23.3%가 젖이 부족해서로 나타났으며 재 분만시의 모유수유 계획은 86.7%에서 모유수유 하겠다고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자는 "없다"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결과는 분만 전후의 모유수유 교육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대중매체가 21.4%, 산전 어머니

교실이 9.5%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본인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영아기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과 수유방법의 비교는 어머니의 연령이 25세 미만일때, 학력이 낮을 수록, 가정주부, 월수입이 낮을수록, 영아의 연령이 1~2개월, 영아의 순위는 둘째, 셋째가 모유수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영아기 어머니의 수유관련 특성과 수유방법의 비교는 자연분만한 경우와 분만후 4~48시간 내에 처음 젖을 물린 경우, 분만 전후 유방 맛사지를 한 경우에 모유수유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유를 먹인 어머니가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1$),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우유수유 어머니보다 재분만시 모유수유를 더 높게 할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평점 4.07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수유방법 특성간의 비교는 모유수유의 어머니가 4.18로 우유수유 어머니의 3.97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정도는 4.37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보다 높게 나왔으며 수유방법 특성간의 비교는 모유수유의 어머니가 4.46, 모유+우유수유 어머니가 4.55, 우유수유 어머니가 가장 낮은 4.18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 정도는 3.21로 비교적 낮게 나왔으며 수유방법 특성간의 비교는 모유수유의 어머니 3.79로 모유수유 시도후의 우유수유 어머니 2.3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7. 영아기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의 관계는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r=.47, p<0.01$)와 함께 태도와 실천과의 관계($r=.34, p<0.01$)가 유의하게 긍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본 연구 결과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간호사의 간호중재는 아주 부족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0.5%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사정하여 모유수유 실행의 변화가 오래하도록 임신초기의 모유수유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과 분만직후의 모유수유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2) 모아간의 출산 직후 처음 30분 정도의 조기 피부 접촉과 2~3시간 이내의 첫 모유수유가 실천될 수 있도록

모자동실(rooming-in)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의자(1995). 모유 영양 기간과 철 결핍성 빈혈과의 관련성, 소아과, 38(11), 1453-1459.
- 권숙희(1993).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김미원(1993). 모유영양아의 이환율 비교, 모자간호학회지, 3(2), 166-171.
- 김숙영(1994).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수유실천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훈(1993). 미숙아 및 만삭아 분만 산모의 초유와 성숙 모유에 있어서 면역세포 구성의 비교관찰,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 3(2), 20-30.
- 김혜숙(1993). 모유수유의 최신정보(2), 간협신보, 804호.
- 김혜숙(1995). 왜 모유수유가 좋은가, 간협신보, 898호.
- 변수자(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손근찬(1991). 소아 알레르기-소아 알레르기의 현황, 소아 알레르기, 1(1), 29-32.
- 송규희(1989). 서울시내 일부병원에 내원한 임산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호(196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3-165.
- 오현이(199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1), 68-79.
- 윤혜선(1992). 우유 알레르기, 소아알레르기, 2(1)(총설), 1-5.
- 이경혜(1992). 국내 모유수유의 실태, 생활간호, 12, 114-116.
- 이근(1985). 한국 영유아의 수유 실태 조사, 소아과, 28(10), 8-12.
- 이상권(1987). Human Rotavirus 감염증과 모유와의 관계, 소아과, 30, 144-14.
- 이종산(1992). 연령증가 및 수유시작 시기에 따른 특이 면역글로부린의 변동, 소아과, 33(12), 1639-1646.
- 이철(1995). 영아의 지능과 운동발달에 모유수유와 인공수유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아과, 38(3), 289-296.
- 전정자(1994). 영아기에 있어서 모유양과 하기도 감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아과, 37(6), 816-821.
- 정진경(1994). 감염병에 대한 모유영양의 방어 효과, 소아과, 37(7), 906-912.
- 조미영(1992).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방안, 대한간호, 31(1), 28-34.
- 한경자(1994). 모유수유와 역할, 모유수유, 대한간호협회.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Nutrition : Breast feeding : A commentary in celebration of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 (1978). Pediatrics, 62, 591-600.
- Baisch, J. (1989). Comparison of breast feeding attitude and practice low-income adolescents and adult woman,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8(1), 61-70.
- Bertotto, A. (1990). Human breast milk T lymphocytes display the phenotype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memory T cell. Eur J. Immunol, 20, 1877-1880.
- Bhaskaram, P. (1981). Bactericidal activity of human milk leukocytes. Acta Paediatr Scand, 70, 87-70.
- Blair, H. (1977). Natural history of childhood asthma : A twenty-year follow-up, Arch. Dis, Child, 52, 613-619.
- Chandra, K. (1979). Propective studies of the effect of breast feeding on incidence of infection and allergy, Acta Paediatr Scand, 68, 691-694.
- Downham, A. (1976). Breast feeding protects against respiratory syncytional virus infec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2, 274-276.
- Eastham, E. (1976). Further decline of breast feeding, British Medical Journal, 1, 305.
- Ebrahim, J. (1979). Breast feeding-The biological option, MacMillan Co., 91-101.
- Goldblum, M. (1975). Antibody-forming cell in human colostrum after oral immunization, Nature, 257, 797-799.
- Kuba, K. (1992). The effect of breast feeding on anthropometric indicators in very young children, Cesk-Pediatr, 47(10), 581-591.

- Lucas, A. (1990). Early diet in preterm babies and developmental status at 18 months, Lancet, 335, 1477–1481.
- Lucas, A. (1992). Breast milk and subsequent intelligence quotient in children born preterm, Lancet, 339, 261–264.
- Marlow, R. (1988).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6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346–345.
- McDermott, R. (1979). Bienenstoke J : Evidence for a common mucosal immunologic system : Migration of B immunoblasts into intestinal, respiratory and genital tissues. J. Immunol, 122, 1892–1898.
- Morrow, M. (1988). Breast-feed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2 years of life, Social Science Medicine, 26, 6.
- Ogra, S. (1978). Immunologic aspects of human colostrum and milk, II. Characteristic of lymphocyte reactivity and distribution of E-rosette forming cells at different times after the onset of lactation. J Pediatr, 92, 550–552.
- Robbin, J. (1992). Breast-feeding in the face of adversity, Maternal-Child Nursing, 1715, 243–245.
- Rodgers, M. (1978). Feeding in infancy and later ability and attainment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 Med Child, 1977, Neurol, 20, 421–426.
- Schlessinger, J. (1977). Evidence for transmission of lymphocyte response to tuberculin by breast feeding. Lancet, 2, 529–532.
- Selye, H. (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 Hill.
- Silva, A. (1978). Some maternal and chil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breast feeding, Aust. Pediatr. J., 14, 265–268.

– Abstract –

Key words : Breast feeding, Knowledge, Attitude, Practice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reast Feeding of Mothers of Infant

Kim, Chung Youb*

This study presents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Incheon are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research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breast feeding of mothers of infant.

The subjects were mothers of 84 Childs, 1–6 months of age.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re than half of the subjects started breast feeding and breast-bottle feeding (61.9%)
2. Duration of breast feeding was under one month (9.6%), 1–2months (13.7%), 3–4months (5.5%), 5–6months (23.3%) and had continued breast feeding until they were questioned.
3. The 40.5% of mothers' never got information of breast feeding and 21.4% of mother got information of breast feeding through T.V. or radio.
4. Degree of mothers' knowledge of breast feed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thers' attitude of breast feeding ($r = .47, p < 0.01$) and degree of mothers' attitude of breast feeding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thers' practice of breast feeding ($r = .34, p < 0.01$).

* Dept. of Nursing, Kungki Junior College.